

5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이념, 허정숙과 이화림

장영은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혁명가 허정숙의 성장

- 아버지 허헌
- 허정숙의 학창 시절
- 조선여성동우회와 단발식

02.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의 활동

- 동아일보와 잡지 《신여성》
- 미국 체류와 여행기
- 허정숙의 근우회 활동

03. 허정숙의 여성해방론

- 조선여성의 해방
- 조선의 콜론타이
- 새로운 연애관

04. 허정숙의 정치 활동과 유서

- 해방과 귀국
- 사망과 유서

05. 이화림의 독립운동

- 이화림의 유년 시절
- 상하이의 한인애국단
- 광저우의 중산대학

06. 이화림의 혁명 활동

- 난징의 조선민족혁명당
- 조선의용대원의 재정비 교육
- 의과대학 진학

07. 이화림과 중국공산당

- 의과대학 졸업
- 중앙당교와 간부 활동
- 문화대혁명과 퇴직

6차시

이화림의 혁명 활동

학습목차

학습목표

- 이화림이 난징과 충칭을 거쳐 구이린 등지로 이동한 행보를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이화림의 삶을 이화림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난징의 조선민족혁명당
- 조선의용대원의 재정비 교육
- 의과대학 진학

난징의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 1935년 7월, 반파시스트 전선 건립을 목표로 결성
- 농민과 노동자, 소자산계급 출신 당원들
- 민족자유, 정치자유, 경제자유, 사상자유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
- 주석 김규식, 총서기 김원봉, 중앙위원 김두봉
- 이화림은 부녀국 위원으로 활동
- “부녀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권력과 지위는 전부 남자와 평등”

조선민족혁명당 간부 이집종과 결혼 및 이혼

- “하지만 결혼 후 반년도 안 되어 내가 부녀국에서 일하게 되자, 그 또한 나의 매우 바쁜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나는 매일 부녀의 지위와 권리는 반드시 남자와 평등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었으나 가정에서는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민족혁명당 간부 이집종과 결혼 및 이혼

- 나는 매우 괴로워하며 ‘남자들은 다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가 나를 연안에 못 가게 저지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우리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졌으며 나도 매우 화가나 끝내는 헤어졌다. 나는 그가 나를 속박하게 놔둘 수 없었고 그가 나의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없었다.”

이화림의 이혼

- 1938년 봄
 - 조선민족혁명당의 결정에 충칭(重慶)에 도착한 이화림
 - 김구와 재회 및 결별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 창설 (총대장 김원봉)

- 중국에 있는 모든 한국 혁명 역량을 동원해 중국 항전에 참전하자
- 일본의 광대한 군민을 쟁취하고, 동양의 약소민족을 발동시켜
일본 군벌을 공통으로 물리치자
- 한국혁명운동을 추진해 한국인의 자유해방을 쟁취하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 조선의용대 부녀부대 부대장 이화림
 - 군대의 일원이 되어 구이린(桂林)으로 이동

조선의용대원의 재정비 교육

《이화림 회고록》

- 1939년 말, 구이린(桂林)에 위치한 조선의용대 본부에 배치된 이화림

“나는 부녀국에서 일했다. 부녀국은 임철애가 대장을 맡았고 내가 부대장을 맡았다.

우리들의 주요 임무는 본부의 요구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항일 선전을 해서 부녀자들로 하여금 반파시즘 투쟁의 중요 역량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선전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우리들과 문학단이 같이 단막극을 편성해 선전활동을 했다.

우리들은 노래로도 항일 운동을 했으며 투항을 반대했는데, 종종 길거리에서도 공연을 했다.”

조선의용대 속 이화림의 역할

- 이화림과 조선의용대의 이동
 - 형양, 창사, 이창, 한커우를 지나 라오커허우를 거쳐
1940년 봄 뤼양(洛陽) 도착
 - 이화림, 전쟁 선전 활동 및 의료 관련 업무

조선의용대 속 이화림의 역할

- 1940년 겨울
 - 이화림, 조선의용대 재정비 교육 담당
 - 시국강연회 및 시국토론회 참가
- 1941년 5월
 - 타이항산(太行山)에서 군사훈련 및 정치문화 공부

조선의용대 속 이화림의 역할

- 1944년 4월
 - 조선의용대 군정학교 입학을 위해 연안(延安) 도착

의과대학 진학

무정(武亭, 1904-1951)

- 중국 화북지역에서 활동한 공산주의 항일운동가 김무정
- 중국 망명 후 중국공산당 가입
- 중국공산당 ‘대장정’ 참여
- 팔로군 최초로 창설된 포병단 단장으로 일본군 공격
- 조선의용군 사령관



김무정

《이화림 회고록》

- 1945년, 무정 장군의 권유로 늦은 나이에 옌안(延安)의 중국 의과대학 진학

“1945년 초, 나와 김화 동지는 옌안 중국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우리는 제20기 학생이었는데, 이는 변경지역 지도자가 우리들이 이 방면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특별 조치를 해주었던 것이다.

나는 옌안 최고 의학과에 가게 되어 정말 흥분되었고 꼭 열심히 공부해 진정한 재능과 건실한 학문으로 지도자의 배양에 보답하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이화림 회고록》

- 1945년, 무정 장군의 권유로 늦은 나이에 옌안(延安)의 중국 의과대학 진학
학교에서 매일 8시간 수업을 받았다. 강의는 전부 중국어로 진행되어 어떤 내용은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필기는 따라갈 수 없어서 친구의 노트를 빌려 적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때는 복습하느라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한 덕에 내 성적은 남에게 뒤처지지 않았다.”

《이화림 회고록》

- 이화림의 공부와 혁명
 - 의사 이화림과 독립운동가 이화림

《이화림 회고록》

- 이화림에게 보낸 무정의 편지

“조직에서 너를 의과대학에 보낼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혁명 사업에 필요한 것이다. 비록 현재 항일 전쟁이 이미 승리했을지라도 우리들 앞에는 더 어렵고 복잡한 혁명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무산계급혁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혁명 승리 후 막중한 건설 사업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가는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의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너는 의학공부를 절대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다시 부대로 돌아와야 한다.”

학습정리

- 난징, 충칭, 구이린, 옌안을 거쳐 1945년에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화림의 행보

다음 차시에서는

- 이화림과 중국공산당

SOURCES

[출처01]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n_Volunteers.jpg

[출처02]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A%B9%80%EB%AC%B4%EC%A0%95.jpg>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